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지난3月8日 88年度 제1次 理事會 召集: 제19次 定期總會 상정案件 심의및 준비완료(1面記事참조)

▲慶南支部

지난3月4日 馬山市 사무소에서 定例녹생회 개최

▲釜山支部

지난3月10日 釜山支部에서 月例녹생회 개최

▲全南支部

지난3月20日보성군사무소에서 定例녹생회 개최。

◉서울東大門區사무소 소개(소장·김기호)

사무소를 開設한지 일천한데 불구하고 김기호소장은 自身의 양구생약農場을 활발하게 經營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KBS TV의 전국일주라는 프로와 농수축산신보의 기업탄방이라는 취재기사에 널리 소개된바 있고、그의 農場에서 栽培되고 있는 지황기등은 品種 선별면에서도 相當한 所得영농임을 評價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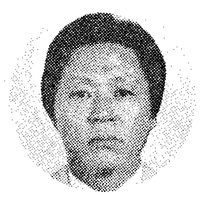
金所長은 이번 春파기를 맞아 自體生産한 生地黃種根을 多量 確保하고 본종근을 필요로 하는 會員이나 分事務所 또는 希望農家에게 어느 종묘상보다도 염가로 분양하여 복합영농으로서의 소득을 돕겠다고 하며 직접내방 또는 서면상담을 요청하면 何時라도 최대 奉仕를 드리겠다고 하니 필요하신분은 많은 活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제공>

會長후보 프로필 (접수순)

◇宋景太후보

◇南廷龍후보


◇曺圭泰후보

宋景太 (當42歲)

現주소: 서울 東大門區 제기동 居住

△화목중 졸업 △흥일상회(한약재 수출및납품업) 代表 △흥일농산(농산물납품업) 代表 △송곡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흥일약업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南廷龍 (當53歲)

現주소: 서울 東大門區 제기동 居住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3년수료 △남중건설 代表 △한국생약협회 충남지부장 △한국생약협회 제6代 會長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대의원 △한미생약사 경영대표。

曺圭泰 (當47歲)

現주소: 서울 東大門區 제기동 居住

△金泉高校 졸업 △金泉극동약업사 10년근무 △영남상회 개업 경영代表 △영남약업사로 업태변경 현 영代表。

農藥사용 콩나물 대책마련에 부심

농약을 사용한 콩나물이 또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재배업자 유통업체 소비자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생산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두채업협동조합 회원들은 18일 교통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일부악덕업자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생산업자들이 생계가 막연한 채피해를 보고있다』며 생산업자 스스로 농약등을 사용하는 유해콩나물재배업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건강관리의 지표

<독자투고 1>

우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합건강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막상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는 각종 검사결과를 앞으로의 건강관리의 지표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한 편이다。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영문도 모르고 각종검사실을 쫓아다니기 일쑤다。 입원했다 퇴원할때까지 한 사람의 환자가 받아야하는 검사의 종류는 줄잡아 20여가지는 된다。

그러나 검사결과를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대로 확인하는 환자는 별반없는것으로 안다。 요는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결과를 잘 이용하면 자신의 건강관리의 주요자료가 되며 이를 지표로 삼을수 있을것이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는 증세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숨어있는 질병을 찾아 내는데도 목적이 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면 우선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묻는 문진과 청진기등을 사용한 촉진을 받는다。

다음에 혈액과 소변대변의 생화학검사를 통해 질병여부를 가려내고 X선촬영이나 초음파진단등 영산진단으로 질병의 유무와진행상태를 정밀검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X선촬영등은 특정질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검사―라고도 한다。

특히 혈액은 체중에 8%를 차지하며 신체의 말초부분까지 돌고있으므로 신체 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도 예민하게 감지 할 수 있다。

혈액으로 검사할수 있는 항목은 백혈구、단백질、콜레스테롤、혈당、B형간염 항원등 3백여가지 나된다。 이중 건강진단으로 실시되는 일반종합검사항목만도 50여가지에 이른다。 백혈구는 급만성 염증시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을 구별해 낼수 있다。 단백질중의 알부민은 수분함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감소할 경우 간경화나 신장질환등을 의심할 수 있다。 주로 간과 심장에 존재하는 효소(SGOT)가 증가하면 간염이나 심근경색증의 우려가 있으며 이와함께 간에 존재하는 효소(SGPT)도 함께 점출되면 간기능장해로 범위를 좁힐수 있다。 또한 혈당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이 크다。

소변검사는 혈액검사의 보완자료가 된다。 소변에 피가섞여 있으면 암이나 신장염등이 의심되고 담즙색소의 주성분인 빌리루빈이나 유로비리노제등이 양성반응을 보이면 간질환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폐결핵이나 위장질환은 혈액 및 소변검사로 확인이 어렵다。 이 때문에 X선촬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X선촬영은 인체내부의 종양등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혈액 및 소변검사、X선촬영등의 통상검사만으로도 질병의 유무、병의 진행상태 각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여부등을 파악할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질환에 대한 의심이 질을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그 부분의 기능검사만 특별히 할수도 있다。

간에 이상이 있는 것같으면 혈액의 일반종합검사를 하지않고 간기능검사만 해도된다。 이때는 혈액속에 종단백알부민 빌리루빈(SGOT)(SGPT) B형간염항원등 10여가지만 검사하면된다。 물론 검사비용도 일반 종합검사에 비해 대폭 싸진다。 혈액 및 소변검사를 통해 특정부위의 이상이 의심되면 X선촬영이외에 초음파(간경화 간염담석증)등 내시경(위염등、위장질환) 심전도(심장질환) 뇌파(두뇌질환) 안압(백내장、고혈압등) 생체검사(자궁암、간암、골수염등)등으로 질병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안양시 사무소장 이봉선 제공>

땅벌(군벌)집

<독자투고 2>

땅속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땅벌이라고 하며 또한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해서 군벌이라고도 한다。 군벌집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집을 건드렸을 때에는 무리를 지어 날아와서 마구 쏘는가 하면 옷속으로 마구 파고들어가면서 쏘는가 하면 심지어 몇백미터까지 따라와서 쏘는 벌인데、요즈음은 이 군벌집이 고질병이라든가 기관지、천식、감기、기침에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험하고 직접 보고 들은것을 소개 하오니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6년 10월에 다른지역사람들이 찾아와서 군벌집을 캐어가는가 하며는 군벌집을 알려주며는 사례금까지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방사람들은 논뚝、밭뚝에 있는 군벌집 때문에 농사일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여 군벌집이 있는곳은 모조리 알려 주면서 캐어 가라고 하니 벌집을 지체없이 캐어 가면서 약으로 쓴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무의미하게 약으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좋은 약으로 쓰일 뿐 아니라、상당한 금액으로 팔더란 것이였읍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종숙어른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봐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약방에 가서 약을 싸 먹어봐도 별효과가 없는 고질병으로 수년간 고생을 하셨는데、병의 증세를 말하자면 숨이 매우 가쁘면서 기침을 많이하고 진땀을 줄줄 흘리는 증세인데、저가 하루는 밭에 갔다 오다 저의 집 앞에 계시는 종숙어른께서 소풀집을 받쳐 놓으시고 업드린 상태에서 많은 기침과 가쁜 숨을 쉬면서 진땀을 줄줄 흘리고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세는 하루에 두번씩은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하루는 누군가로부터 그런 병에 군벌집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들어시고 받근처에 있는 군벌집을 캐어다가 삶아 먹고난 뒤부터는 그런 병증세가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하였읍니다。

종숙어른께서 군벌집을 캐어다가 삶아 잡수시고 고질병을 고쳤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 논뚝에 있는 군벌집을 캐어다가 삶아 먹는다 하고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루는 경주시장에 갔다 오더니 시장에는 군벌집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웬 아주머니께서 하는 말이 자기집의 세살먹은 애기가 감기·기침이 하두 심해서 군벌집을 싸다가 생강 몇조각과 함께 달여 먹였더니 감기·기침을 안하게 되었다면서 군벌집을 또 싸가더라고 하면서 우리 논뚝에 있는 벌집을 캐어 오라고 하기에 서리가 내린 아침에 군벌집을 캐로가서 벌집을 파니 벌이 무리를 지어 뒤엉켜 나오기에 못 캐고 돌아왔는데 후에 아내가 그 군벌집을 캐어 오기에 보았더니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끼고 그물을 쓰고서 캐어 왔는데 매우 큰 땅벌집이였읍니다。

캐어온 벌집을 삶아 먹어보았더니 맛은 팥죽맛같았고 색깔도 팥죽 비슷하였읍니다。 그것을 먹어서 그런지 한해 겨울에 두세번은 감기에 걸리고 계절이 바뀔때마다 하던 감기에 아직까지 걸리지 않는것을 보면 감기와 천식에 좋은 효력이 있는 것 같읍니다。

나와 함께 군벌집을 먹은 우리집 세살짜리 애기도 아직까지 감기를 안 하는것입니다。 그 벌집을 삶아 먹기전에는 다 달이 감기 비숫한 증세가 있곤 하였읍니다。 저가 먹어본 사실이야기를 하였더니 속병 앓는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하길레 나누어 드렸더니 먹고서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군벌집을 무심코 건드렸을 때는 재빨리 낮은 곳으로 피해 있으면 한참 위를 뱅뱅 돌다가 되돌아가지만 만약에 멀리 도망가면는 벌이 무리를 지어 자꾸 따라 갈뿐 아니라、많이 쏘이며는 생명을 잃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것이 좋은 약이 되는 수도 있고 명약이라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수가 있으니 내 몸에 맞는 이와 같은 민간료법도 한번쯤 선택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망성1리 886번지 權純釆>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충청남도 지부

지부장		문대규
서산군	사무소장	이영래
당진군	〃	최동진
예산군	〃	성백덕
홍성군	〃	주정철
공주군	〃	이기범
대전시중구	〃	이상국
청양군	〃	조병섭
보령군	〃	박종완
부여군	〃	심만식
논산군	〃	이수산
조치원시	〃	박순일
아산군	〃	윤호원
온양시	〃	윤동찬
대전시동구	〃	한대규
금산군	〃	김기복
대전시서구	〃	김영신

1988年 3月 20日